

황현의 『集聯』에 수록된 四家 聯句 고찰

장 람*

차 례

1. 머리말
2. 황현의 작시관
3. 『集聯』에 수록된 四家 聯句의 양상
 - 3.1. 참신한 詩語와 典故의 連用을 통한 新奇 추구
 - 3.2. 색채의 대비와 조화를 통한 詩中有畫의 美的 표출
 - 3.3. 寫實的인 필치를 통한 농촌 실경의 재현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황현의 작시관을 바탕으로 『집련(集聯)』에 수록된 사가(四家) 연구(聯句)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집련』에서 많은 중국시인과 한국 시인의 연구를 수록하였다. 여기 주목할 만 한 점은 황현이 『집련』의 서문에서 시를 배울 만한 모범으로 한국 시인 가운데 특별히 사가를 거론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황현이 사가 연구를 통해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황현은 법고창신적 작시관을 가지고 있으며, 신운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시중유화의 운치를 추구하고, 생활주변에서 창작 소재를 찾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시창작 방식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황현의 작시관이 『집련』에 수록된 사가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고찰하였다. 황현은 사가의 『한객견연집』에 있는 시작품을 주목하였고 여기에 내재된 신기를 중요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색채의 대비와 조화를 통한 시중유화의미를 표출하는 연구를 선별하고 보다 새로운 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황현 또한 조각 없이 농촌 실경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연구에도 주목하였다. 이처럼 『집련』에서 수록된 사가 연구의 양상에 황현의 작시관이 투영되고 있다.

황현은 학문하는 태도로 있는 그대로 본받기보다는 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황현이 후학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사가 연구의 공부를 통해 비판적 수용의 학시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있다. 『집련』은 교육서로서 연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 창작 방법까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한다. 이는 황현의 교육자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연구(研究)는 황현의 시 교육 연구에 또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핵심어 : 황현, 집련, 사가 연구, 작시관, 한객건연집

1. 머리말

매천(梅泉) 황현(黃玿, 1855~1910)은 1883년에 관료사회의 부패를 겪고 난 뒤 일찍이 벼슬을 포기하고 학문탐구와 후학양성에 전념하였다. 그는 낙향하여 1884년에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역대 한시에서 연구(聯句)를 선집(選集)하여 『집련(集聯)』¹⁾이라는 학시(學詩)²⁾ 교재를 편찬하였다.³⁾ 이 책에는 모두 3,118연⁴⁾의 연구가 인용되었는데, 중국 시인은 육조부터 청나라까지, 한국 시인은 신라부터 조선후기까지 역대 문인의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황현의 학시와 『집련』에 관련된 연구(研究)는 주로 학시의 전범이 된 시에 대한 황현의 차운시 연구⁵⁾, 전체 학시의 기초적인 연구⁶⁾, 황현의 초기 교

1) 황현의 『집련』 원본은 현재 순천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호남지방문학연구소에 복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여기서 학시는 역대 훌륭한 시인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 그로부터 작시 방법이나 풍격을 배워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기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3) 余於甲申冬 爲授兒子計 輯此本(黃玿 編, 「集聯序」, 『集聯』)

4) 5연(1571연)과 7연(1547연)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연구뿐만 아니라 절구의 기구와 절구도 조금 포함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대, 작가의 구분이 분명하지만 그 중의 590연은 주제별로 편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제별로立春, 元日, 人日, 元夜, 寒食, 清明, 端午, 伏日, 立秋, 七夕, 中元, 中秋夜, 重九, 冬至, 臘日, 除夜, 遊春, 送春, 山行, 江行, 春望, 秋望, 春懷, 夏日, 秋懷, 冬日, 斜陽, 月, 待月, 日蝕, 祈雨, 旱, 雪, 虹, 霞, 霧, 經籍, 勤學, 借書, 詩, 書簡, 儒師, 交友 등등 적혀 있다.

5)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사, 1999, 16~106쪽.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황현의 학시 주요 대상 시인을 제시하였고 이들의 시를 중심으로 황현의 차운시를 고찰하였다. 이는 황현의 한시 연구에서 그의 학시 경향을 밝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6) 배중석, 「『집련』을 통해 본 매천의 학시경향」,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배중석, 「매천 한시의 서정적 특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는 『집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며 이를 통하여 황현의 학시가 『집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련』의 연구는 황현이 가지고 있는 학시의 경향을 넓혀주는 단서임을 밝혔다.

육사상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황현의 학사 주요 대상의 연구(聯句)를 분석하면서 그 영향관계를 많이 밝혔으나, 주로 책에 수록된 중국 시인의 연구에 치중하였다. 사실 황현은 『집련』에서 중국 시인 외에도 여러 한국시인의 연구를 선별하였다.⁸⁾ 특히 『집련』 서문에서 한국 시인 가운데 사가(四家: 李德懋, 朴齊家, 柳得恭, 李書九)⁹⁾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황현이 사가의 연구를 특별히 모범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 양상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시학의 영역에 지금 세상의 사람이 옛사람보다 낫다고 하니 어찌 그러하겠는가! 오직 옛것에서 법을 취하고 나서야 시어도 예스러워진다. 신자하와 사가는 지금의 모범이 되기에 무방하며, 청나라의 여러 대가는 중국에 있지

- 7) 김영봉, 「황매천 시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영봉은 황현의 교육 사상을 고찰할 때 황현의 초기 교육 사상과 사교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집련서」를 들었다.
- 8) 『집련』에서 인용된 한국 시인을 살펴보면 백낙륜의 연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은 사가, 신위이다.

시대	작가	5언	7언	합계
朝鮮	白洛倫	56	183	239
朝鮮	申緯	/	57	57
朝鮮	朴齊家	/	50	50
朝鮮	李德懋	8	36	44
朝鮮	金麟厚	20	/	20
朝鮮	柳得恭	8	12	20
朝鮮	李書九	/	18	18
高麗	李奎報	8	5	13

- 9) 청나라 문인 이조원과 반정균은 『한객건연집』 서문에서 각각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이 네 사람을 묶어 ‘사가’, ‘해동사가(海東四家)’라 명명하였다. 이로부터 ‘사가(四家)’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고, 그 이후 ‘후사가’, ‘북학파’, ‘백담시파’ 등으로도 불렸다. 일반적으로 한국한문학에서는 이정구, 신희, 장유, 이식 등을 ‘전사가(前四家)’라 하고, 이덕무를 비롯한 세 사람을 ‘후사가(後四家)’라고 지칭하고 있다. 필자는 ‘후사가’가 조선후기의 한시사가를 지칭한 호칭인데, 한문사대가(전사가)와 대칭되면 뒷시대의 한문사대가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청나라 시인이 이덕무를 비롯한 세 사람을 묶어 처음으로 ‘사가’, ‘해동사가’라고 부르는 점과, 『한객건연집』은 나중에 『사가시집』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후에 주를 달고 『전주사가시(箋註四家詩)』라는 표제로 재판을 간행한 점을 감안하여 ‘사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자 한다.

만 우리나라 사람의 모범이 되기에 무방하니, 처음 시를 배우는 자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근원을 궁구하여 옛 작가의 뜻을 탐구하게 되는데 또한 이 책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황현은 시를 배울 만한 모범으로 중국 청나라 시인, 신위(申緯)와 사가를 들었다. 사실 조선후기부터는 실학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풍을 다방면적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학시에 있어서는 송시(宋詩)를 고취하는 사조와 함께 이용휴, 박제가 등이 보인 당시 문인들의 당시(唐詩) 위주의 편향적 학시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영향을 받아서 소식시는 물론이고, 육유시도 학시의 정칙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¹¹⁾ 이러한 주류(主流) 경향 속에 황현이 시 학습책의 서문에서 특별히 신위와 사가를 언급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황현과 신위¹²⁾, 백낙륜¹³⁾의 영향관계만 치중하여 사가 연구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이 없었다. 황현이 왜 사가의 연구를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그 궁극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집련』에서 수록된 사가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研究)를 참고하면서 황현의 몇 가지 작시관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황현의 작시관이 사가 연구를 선별할 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사가 연구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황현이 사가 연구를 전범으로 삼아 초학자(初學者)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는 황현의 시 교육 연구에 또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0) 而或謂詩學一路 今人勝古人 豈其然哉 惟取法於古 然後詞亦古耳 紫霞四家 不啻為今日之古 清人諸家 在中國 不啻為東人之古 則初學之士 溯流窮源 究古作者之旨 亦有間津於此者乎(黃珪 編, 『集聯序』, 『集聯』)

11) 장인진, 「조선조 문인의 육방용시 수용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제6집, 계명문화학회, 1990, 22~23쪽.

12) 정시열, 「신자하와 황매천의 논시절구 비교 연구 - 동인논시절구와 독국조제가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재표, 「매천 시의 형성 기반과 시적 교류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3) 배종석, 앞의 논문, 2009, 31쪽. 이 논문에서 황현이 인용한 사가의 연구는 다사(多師)의 학시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황현이 이들과 같은 시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귀결하였다.

2. 황현의 작시관

『집련』은 황현이 호양학교에서 초학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였던 한시 학습 교재이다. 그는 서문에서 『집련』을 편집할 때 호응린(胡應麟)의 『시수(詩藪)』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언급하였고,¹⁴⁾ 이와 함께 참고한 책은 서거정의 『동문선』, 심덕잠(沈德潛)의 『청시별재집(淸詩別裁集)』,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 등이 있다.¹⁵⁾ 이를 통해 황현이 다양한 시대의 책을 보고 다양한 시인의 시를 참고하여 『집련』을 편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현의 이러한 학문태도는 「소천의 시집 뒤에 제하다(題小川詩卷後)」에서 “대개 자기 뜻에 따라 말을 만들고 어느 특정한 한 시가(詩家)에 닮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정이 이른 곳에서 자연스런 숨씨가 나오게 된다.”¹⁶⁾라는 서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황현이 연구를 선별할 때 자신의 작시 태도를 녹였을 것이다.

황현의 작시관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없으나 그의 몇몇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소천의 시집 뒤에 제하다」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릇 학문이라는 것은 옛 것을 배우는 것을 귀히 여기고, 옛 것에 얽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신기(神氣)로써 밝히는 것을 일러 사(師)라 하고, 얽매어 통하지 않는 것을 일러 이(泥)라 하니, 다 같이 옛 것을 본뜬데도 옛 사람과 요즘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분명하다.¹⁷⁾

14) 始取胡應麟詩藪爲藍本 因於兔園敗冊中 隨得隨鈔 紙盡而止(黃玿 編, 『集聯序』, 『集聯』)

15) 『집련』을 살펴보면 한국 시인의 연구 중에서 『동문선』 편찬 시기 이전의 연구는 거의 『동문선』과 같은 편차로 편집되었고, 청나라 시인의 연구는 심덕잠의 『청시별재집』과 같은 편차로 편집되어 있고, 사가(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박제가)의 연구는 거의 『한객건연집』과 같은 편차로 편집되었다. 따라서 이 세 시집은 『집련』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인용 수량이 많은 개인 작가의 경우(예로 두보, 육유, 소식, 백낙륜, 신위 등)는 개인 문집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16) 蓋隨意命詞, 不求似乎一家, 而神情所到, 脫乎天然(黃玿, 「題小川詩卷後」, 최승효 편,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취편』 상권, 미래문화사, 1985, 64~66쪽)

17) 凡以學問稱者, 貴乎師古, 而不貴乎泥古. 神而明之之謂師, 拘執不通之謂泥, 均是古也, 而古今得失之蹟瞭然矣(黃玿, 「題小川詩卷後」, 최승효 편, 같은 책, 64~66쪽)

황현은 법고를 ‘사고(師古)’와 ‘이고(泥古)’로 구별하는데 옛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시하면서도 옛 것에 얽매이는 것은 꺼려하였다. 즉 법에 구속되지 않고 범주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법 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나 그것에 전적으로 얽매어서는 독창적인 작품을 쓸 수 없으니 고법에서 자유로울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다.¹⁸⁾ 때문에 황현은 시 창작에 있어 옛 것을 배척하지 않은 동시에 신의(新意)도 추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가 박지원의 『연암속집(燕巖續集)』에 쓴 발문¹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현은 독특하면서도 진부하지 않은 연암의 글을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였다. 연암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장하여 창신에 의미를 두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기서 새로운 신의를 얻으려 하였다.²⁰⁾ 이와 마찬가지로 황현의 주장은 비록 옛 법을 버릴 수 없으나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 그 참 뜻을 터득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황현의 법고창신적인 작시관으로 볼 수 있다.

박지원과 뜻을 같이 하는 사가도 개성이 없이 남의 것을 답습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때문에 한 개인이나 한 시대의 작품을 학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역대 시인의 작품을 두루 섭렵하고 그들의 장점을 터득하여 아울러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시작 활동을 하였다. 이는 『집련』 서문에서 보여주었던 황현의 학문태도와 유사한 면모다. 더구나 사가는 옛 시인의 폐단을 잘 피하며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풍을 이루었다. 이는 황현이 사가와 같은 시대의 시인인데도 그들의 시작을 중요시하고 연구(聯句)를 선별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황현은 시에서 신운론(神韻論)에 대한 태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논시

18) 法終可捨歟，曰胡可捨也。惟不拘乎法，而求以得其意，則其佳者自與法合，斯乃不法之法耳。(黃珪, 「答李石亭書」. 신혜숙, 「매천 황현의 문학사상 고찰」, 『동원논집』 제2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85쪽에서 재인용.)

19) 蓋古人之文其取材不必純，擇語不必莊，立心也不必有用，而結體也不必相類，興會所至，不過吐其胸中之奇而發抒其獨得之妙，居然成天下之至文……嗚乎！國朝之文至先生，抑可以觀止矣。余雅好先生文，適金于霖募力刊先生文，而馳書徵跋，故爲之書如此。(黃珪, 「燕巖續集跋」, 한국고전번역원DB).

20)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31쪽.

잡절)에 청나라 시인으로 오직 왕사정(王士禎)을 꼽았고²¹⁾ 추존하였다. 왕사정은 명청 교체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탈속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며 당대의 편협한 시단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두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운설을 주장하였다.²²⁾ 신운의 개념에 대해서는 왕사정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 대략적인 특징은 엄우(嚴羽)²³⁾의 ‘이선유시(以禪喻詩)’와 ‘흥취’에 영향을 받아 ‘언외지미(言外之味)’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황현은 이러한 신운시의 풍격을 중요하게 여겨 추구하였다.

왕사정이 왕유의 시를 신운시의 모범으로 삼았고, 왕유의 시에 드러난 ‘시중유화’의 운치를 신운시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았다. 황현 또한 시를 창작하는 데에 있어 ‘시중유화’의 운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그의 논시(論詩)에서는 남종화파(南宗畫派)의 원말(元末) 사대가 가운데 한 사람인 운림거사(雲林居士) 예찬(倪瓚)을 원나라의 대표적 시인으로 꼽았다.²⁵⁾ 예찬의 시는 “도연명, 위응물, 왕유, 맹호연과 같으나 제멋대로 하는 습기(習氣, 습관이나 버릇)는 하나도 없다”²⁶⁾라는 평을 받았는데, 바로 시중유화의 운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황현이 예찬을 원나라의 대표시인으로 꼽은 이유도 예찬시의 ‘시중유화’의 운치를 높이 평가해서였다고 여겨진다.²⁷⁾ 그 뿐만 아니라 황현도 남종화파의

21) 橫山範水境生層, 憐汝風騷絕世能. 一部精華堪下拜, 帶經堂裏炯孤燈.(黃玃, <丁掾日宅寄七絕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絕以謝> 卷12수, 한국고전번역원DB)

22) 박종훈, 「조선 후기 왕사정 신운 시론 수용 양상 -한시 사가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218쪽.

23) 엄우는 중국 송나라의 시론가(詩論家)이다. 호는 창랑(滄浪)이며 자는 의경(儀卿)이다.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일생동안 은일자로서의 지조를 고집하였다. 여기저기를 유람하며 많은 승려·도사들과 교유하였다. 『창랑시화』는 송나라 때에 배출된 시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체계를 정립한 시론서로서 선학적인 발상에 바탕을 두고, 시의 원리론적 소향성이 강하였다. 때문에 시학 이론의 구상력과 분석력에 매우 탁월하였다.(두산백과 참조)

24) 박종훈, 위의 논문, 2008, 218쪽.

25) 竹桐猶洗況塵心, 清閨堂中道氣深. 豈盡元人纖麗已, 當時真逸有雲林.(黃玃, <丁掾日宅寄七絕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絕以謝> 卷10수, 한국고전번역원DB)

26) 詩如陶韋王孟, 而不帶一點縱橫習氣乎.(陳繼儒, 「倪雲林集序」, 『陳眉公全集』下, 上海中央書店, 1936, 127쪽.)

27) 기태완, 같은 책, 157쪽.

명나라 진계유를 학시의 대상으로 삼아 진계유의 시를 많이 차운하였는데,²⁸⁾ 역시 같은 이유에서이다.

황현은 생활주변 모든 것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사실적인 묘사를 중요시한다. 그가 평소 즐겨 말하기를, “시문은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의 습성(習性)은 고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후세에 태어나서 전고(前古)의 것만을 억지로 본받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였다.²⁹⁾ 그는 자기가 사는 시대의 글을 창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황현은 농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늘 주변에서 창작 소재를 찾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늦여름에 장마가 갠 촌가를 묘사하는 시에서 “긴 장맛비 속에 소와 염소 게을러지고, 궁벽한 산골마을에 풀 열매 과일 익기도 더디네.”³⁰⁾라고 하였다. 시구를 보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별다른 조탁을 하지 않았다. 평범하지만 꾸밈없는 농촌의 정경을 사실적으로 읊어내고 있는 것이다. 시를 창작할 때 상상력에 의하여 현실 경물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황현은 주변에서 늘 접하는 경물, 자연풍물 등을 소재로 삼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황현의 작시관은 워낙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서술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만을 살펴보았다. 종합해 보면 황현은 범고창신적 작시관을 가지고 있으며, 신운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시중유화의 운치를 추구하고, 생활주변에서 창작 소재를 찾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시창작 방식을 중요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황현의 작시관이 반영된 『집련』에 수록된 사가 연구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8) 장람, 「매천 황현의 중국문인 차운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60쪽. 황현의 차운시에서 진계유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시중유화의 미와 솔직하고 자연스럽지만 아름다운 표현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29) 常曰, 詩文出於性. 人之習性, 古今殊異, 生乎後世而強效前古, 則決無能成之理.(朴文鎬, 「梅泉黃公墓表」, 한국고전번역원DB)

30) 積雨牛羊倦, 窮村蔬果遲.(黃玆, <夏晴>, 한국고전번역원DB)

3. 『集聯』에 수록된 四家 聯句의 양상

『집련』에 인용된 사가 연구는 모두 『한객건연집』³¹⁾의 편차대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황현은 『한객건연집』을 참고하여 사가의 연구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한객건연집』은 유금(柳琴)에 의해 사가의 초기 시집에서 각각 약 100수씩 뽑아 엮은 선집이다. 유금은 연행(燕行)에서 이 선집을 청나라 문인인 이조원(李調元)과 반정균(潘庭筠)에게 보여주고 서문과 평어를 받았다.³²⁾ 이 책은 현존하는 18세기 문집 가운데 청나라 문인에게 자세한 평을 받은 유일한 시 선집이다. 그리고 『한객건연집』은 사가의 초기 시 선집으로 이덕무·박제가·유득공이 검서관(檢書官) 출사 이전이었던 사가의 전성기에 창작되어 한시사(漢詩史)에서 새로운 시풍을 선도했다고 평가를 받은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한말 문인 여규형(呂圭亨)은 논시에서 당시 시를 배우는 초학자들이 『한객건연집』을 교과서로 삼아 익히던 현상을 언급하였는데,³³⁾ 황현 또한 비슷한 생각으로 이 책에 주목하고 참고하면서 연구를 선정하였을 것이다.

또한 황현이 인용한 총 132연의 사가의 연구 가운데, 이조원과 반정균이 비점이나 평어를 짚은 연구는 78연이다. 평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조원과 반정균은 사가의 참신한 작시방식과 그들의 우수한 표현력, 회화성 등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황현은 역시 이를 동의하면서 자신의 작시관과 결합하여 연구를 선별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사가 연구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31) 柳琴 編, 李德懋·柳得恭·朴齊家·李書九 著, 『韓客巾衍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원문을 참조함.)

32) 이조원과 반정균은 각각 비점(批點)과 권점(圈點)을 찍었으며, 각권 끝에는 이조원의 총평과 반정균의 발미(跋尾)가 있다.

33) 世稱四家詩, 合璧巾衍集. 中朝人批評, 柳琴所編什. 初學小兒輩, 謄寫競傳習. 熏染效聲口, 乖張墮階級. (呂圭亨, <論詩十首 其四>, 『荷亭集』卷一; 류재일, 『이덕무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8, 277쪽에서 재인용.)

3.1. 참신한 詩語와 典故의 連用을 통한 新奇 추구

사가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여러 측면으로 신기(新奇)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이 ‘신기’는 진부한 표현을 지양하고 참신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먼저 한 측면은 수사(修辭)와 미적(美的) 지향으로서의 참신한 표현을 중시하고, 독특한 발상을 통해 신선한 시경을 창출하는 것이다.

赴鞭形葉回旋舞 붉은 잎 채찍 따라 춤추듯 맴돌며 지고,
 跳笠紺虫의歷飛 샷갓 위에 뛰는 검푸른 벌레 야무지게 나네.³⁴⁾
 (이덕무, <龍仁途中>二首 其一)

策策堂堂者 ‘策策’과 ‘堂堂’이라는 물고기,
 洋洋圍圍然 느릿느릿하고 빌빌거리네.
 (유득공, <觀魚>五首 其二)

池花沒骨徐郎墨 연못의 꽃은 물골화법으로 그린 徐郎의 그림과 같고,
 野水分頭酈水經³⁵⁾ 들 가운데 비긴 강물 갈라짐은 酈道元의 水經注 같네.
 (이서구, <野亭晚行>)

水墨全然鋪夜色 수묵은 완전히 밤경치를 풀어내고,
 須眉盡欲作秋聲 須眉는 모두 가을 소리를 내고자 하네.
 (박제가, <曉渡銅雀江>)

이덕무의 연구는 시각적으로 시골에서 가을을 맞이하는 풍경을 곡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붉은 단풍잎은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춤추는 것처럼 빙빙 돌면서 떨어진다. 이에 나뭇잎에 있던 파란 벌레는 갓 위로 뛰어올라 금방 야무지게 날

34) 사가 연구의 번역은 『四家詩選』(이덕무 외 저, 김상훈·상민 역, 여강출판사, 2000.)과 한국고전번역원DB를 참고하여 필자의 해석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였다.

35) 『한객건연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野水分頭酈氏經”으로 되어 있다.

아간다. “동엽(彤葉)”과 “감충(紺蟲)”, “무(舞)”와 “비(飛)”의 대우는 시각적 색채에 동적인 이미지를 결부하여 기묘한 느낌을 준다. 이덕무의 다른 연구를 보면 옷에 밝은 빛은 나무 끝에 강성의 달을 비추는 것이며, 짙신의 따뜻함은 성 밑에 꽃밭 길을 거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³⁶⁾, 독특한 발상으로 정자에서 보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다음 유득공 연구를 보면 전구의 ‘책책(策策)’과 ‘당당(堂堂)’은 물고기의 이름³⁷⁾인데 첩자(疊字)로 되어 있다. 후구의 “양양(洋洋)”은 물고기가 느릿느릿하게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고, “어어(圍圍)”는 갇힌 물고기의 괴로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³⁸⁾ 첩자의 대우를 통해 물고기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다. 다른 유득공의 연구에서 “영신초는 이제 작은 풀이 아니고, 소미 별자리는 옛날부터 추운 밤의 별이었네.”³⁹⁾라고 하여 특별한 쌍관어를 쓰며 인상적으로 처사(處士)의 한탄을 읊었다.

이서구의 연구를 보면, 연못에 피어 있는 꽃은 마치 서낭(徐郎)이 물골화법(沒骨畫法)으로 그린 것처럼 예쁘고, 들 물의 갈라짐은 역도원(鄺道元)의 『수경주(水經注)』에서 생동적인 필치로 묘사한 것처럼 아름답다. 직접적인 묘사 대신 독특한 발상으로 자연 풍경을 그려내어 신선한 시경에 이르게 하였다. 이서구의 다른 연구 “머리 붉은 잠자리가 물을 치며 낮게 날고, 제비는 깃털 털며 진흙 물에 스쳐가네.”⁴⁰⁾를 보면 독특한 발상에서 비롯된 참신한 시어를 활용하였다.

박제가의 연구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가을밤의 경치를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어두운 밤은 수묵으로 물들인 듯하고 수염과 눈썹에 스치는 바람은 가을소리처럼 스산함까지 느껴졌다. 세련된 언어구사력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36) 衣明樹末江城月, 靴煖城根逕入花.(黃玑 編, 『集聯』)

37) 南唐·譚峭 『化書·食化·庚辛』: “辛氏之魚可名堂堂.” 宋·孫奕 『履齋示兒編·雜記·物重名』: “鯉曰六六魚, 策策, 堂堂(辛氏之魚名).” 清·金農 <海會寺池上觀魚呈道禪師> 詩之二: “未必歲收千百利, 堂堂策策少驚呼.”(百度百科 引用)

38) 『孟子·萬章上』, “昔者有饋生魚於鄭子產, 子產使校人畜之池, 校人烹之, 反命曰, 始舍之, 圍圉焉. 少則洋洋焉, 攸然而逝. 趙岐註: 圍圉, 魚在水羸劣之貌. 洋洋, 緩搖尾之貌.”(百度百科 引用)

39) 遠志如今非小艸, 少微從古是寒星.(黃玑 編, 『集聯』)

40) 點水丈人低赤弁, 含泥公子拂烏衣.(黃玑 編, 『集聯』)

있어서도 참신함이 돋보인다. 박제가의 다른 연구를 보면 “새·짐승도 모두 다 절 종소리 들어 함께 어울리고, 구름과 안개 언제나 돌 기운 드러내네.”⁴¹⁾라고 했는데, 신성한 사찰의 분위기가 자연 경물과 서로 어울리며 참신한 표현을 통해 이 조화로움을 경탄하였다.

다른 한 측면은 고사를 절묘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발하고 개성적인 발상을 시화하면서 신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頃刻花惟鳧外浪 오리떼 너머 물결은 순간에 핀 꽃이요.
飛來峯是馬頭雲 말머리 위에 구름은 날아온 봉우리네.

(이덕무, <銅雀津>)

整冠納履猶商頌 모자 가다듬고 신 끌면서도 商頌을 노래하고,
戴笠乘車亦越吟 삿갓 쓰고 수레 타도 越歌를 읊조리네.

(유득공, <芙蓉山中話舊述懷>五首 其三)

坐處青山捫虱話 청산에 앉아 이를 잡으며 이야기하고,
歸來白石飮牛歌 백석에 돌아와 반우가 부르네.

(이서구, <寒夜贈李山人德初明復>)

人方履頂吾看趾 앞 사람은 내 이마를 밟듯 뒷꿈치만 보이고,
仰似懸疣俯眩睛 올려다보면 혹 달린 듯 내려다보면 아찔하네.

(박제가, <白雲臺>)

이상 제시된 네 연구는 모두 『한객건연집』에서 비점이 찍혀 있다. 먼저 이덕무의 연구에 대해 이조원은 “참신함의 절정이다.(新穎之至)”라고 하였으며 반정균은 “명구(名句)”라고 평하였다. 전구의 “경각화(頃刻花)”는 한유(韓愈)와 그 조카인 한상(韓湘)에 관련된 고사⁴²⁾인데 갑자기 핀 기이한 꽃이라는 뜻이다. 후구

41) 鳥獸俱合鍾磬響，雲霞常見石金精。(黃玹 編，『集聯』)

42) 宋·劉斧，「青瑣高議·韓湘子」，“唐韓愈侄韓湘，落魄不羈，對酒則醉，醉則高歌。愈教而不聽，湘笑曰，湘之所學，非公所知。即作言誌詩壹首，中有解造逡巡酒能開頃刻花之句，愈欲驗之。適開宴，

의 “비래봉(飛來峯)”은 진(晉)나라 혜리(慧理) 스님이 하는 말⁴³⁾에서 나온 것으로 날아온 봉우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한 “경각화”와 “비래봉”은 기존 고사가 지닌 상투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시어로 구사되고 있다. 즉 경각에 핀 꽃은 오리가 헤엄칠 때마다 생기다가 사라지는 물결을 비유한 것이고, 날아온 봉우리는 말머리 위의 구름 모양이 순식간에 날아온 것 같다는 의미로 전용(轉用)한 것이다. 눈앞에 순간적으로 펼쳐진 미경을 포착하여 고사에 빗대어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유득공 연구의 전구는 증자(曾子)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였다. 증자는 위(衛)나라에서 빈한한 생활을 하였다. 모자를 쓰려고 했는데 갓끈이 끊어지고, 신발을 신었는데 뒤꿈치가 터질 지경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증자가 『상송』을 노래하자 그 소리가 천지까지 울려 퍼졌다고 한다.⁴⁴⁾ 고사에는 심치(心志)를 고상하게 갖고 닦으면 자신의 모양도 있고, 양생법으로 잘 하면 관록도 있으며 구도(求道)에 정진하면 걱정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후구에는 월인(越人) 장석(莊舄)이 초나라에서 벼슬을 잘 했으나 월나라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고사⁴⁵⁾를 인용하여 부귀를 누리면서도 나라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두 고사는 서로 연관되지 않고 이질적이지만 시인이 고상하게 살자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서구의 연구를 보면 ‘문슬(捫風)’은 진(晉)나라의 왕맹(王猛)이 당시의 권력

湘預末坐 取士聚於盆，用籠覆之。巡酌間，花已開，巖花二朵，類世牡丹，差大艷美，合座驚異。”(漢語大詞典 引用)

43) 『咸淳臨安志』卷二三, “晏元獻公輿地志云, 晉咸和元年, 西天僧慧理登茲山。歎曰, 此是中天竺國靈鷲山之小嶺, 不知何年飛來。佛在世日, 多爲仙靈所隱, 今此亦復爾邪。因挂錫造靈隱寺, 號其峰曰飛來。”(漢語大詞典 引用)

44) 『莊子集釋』卷九下, 「雜篇·讓王」, “曾子居衛, 緇袍無表, 顏色腫膃, 手足胼胝。三日不舉火, 十年不制衣, 正冠而纓絕, 捉拚而時見, 納屨而踵決, 曳繼而歌《商頌》, 聲滿天地, 若出金石。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故養志者忘形, 養形者忘利, 致道者忘心矣。”(搜韻網(<https://sou-yun.com>) 引用)

45) 『史記』卷七十, 「張儀列傳」, “韓魏相攻, 期年不解。秦惠王欲救之, 問於左右。左右或曰救之便, 或曰勿救便, 惠王未能爲之決。陳軫適至秦, 秦惠王曰, 子去寡人之楚, 亦思寡人不? 陳軫對曰, 王聞夫越人莊舄乎? 王曰, 不聞。曰, 越人莊舄仕楚執圭, 有頃而病。楚王曰, 舄故越之鄙細人也, 今仕楚執圭, 貴富矣, 亦思越不? 中謝對曰, 凡人之思故, 在其病也。彼思越則越聲, 不思越則楚聲。使人往聽之, 猶尚越聲也。今臣雖棄逐之楚, 豈能無秦聲哉!”(搜韻網(<https://sou-yun.com>) 引用)

자 환온(桓溫)을 처음 만났을 때 이를 잡으며 세상사를 당당하고 차분하게 말했다는 고사⁴⁶⁾에서 나온 말이다. ‘반우가(飮牛歌)’⁴⁷⁾는 춘추시대 고사로 현명한 군주를 만나지 못한 제(齊)나라의 영척(甯戚)이 소를 기르다가 자신의 한탄을 노래로 불렀는데, 마침 제환공(齊桓公)이 듣고 영척을 중용하였다. 이 고사를 통하여 청산에 앉아 있어도 당당하고 차분하게 세상사를 논하고, 자신의 능력이 쓰이지 못해도 침착하게 반우가를 부르는 은일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자신이 동경하는 은일자의 모습을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개성 있게 표현한 것이다.

박제가의 연구는 높고 험한 백운대를 올라가면서 어질어질한 광경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다. 앞서 간 사람은 내 이마를 밟고 있는 듯하고, 우러러보니 암벽에 혹처럼 매달려 있는 듯하며, 내려다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산이다. 백운대의 높고 가파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마제백(馬第伯)의 「봉선의기(封禪儀記)」 한 구절을 가져와 차용하였으며, 『장자(莊子)』의 “그들은 삶을 균살이나 혹이 달리붙고 매달린 것처럼 생각한다.(彼以生爲附贅懸疣)”라는 구절을 변용하였다.⁴⁸⁾ 이 연구에 대해 반정균은 ‘신기하고도 아름답다(奇麗)’라고 호평하였으며, 이조원도 “아주 뛰어난 필체(筆有鬼工)”라고 극찬하였는데 고사를 활용하여 독특한 발상을 시화하는 데에 착안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황현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 감각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시어를 사용하는 작시 방법을 중요하게 여겨 이러한 사가의 연구를 선별하여 『집련』에 수록하였다. 이 연구들은 기존의 진부한 표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기발한 발상을 포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감을 동반한 묘사와 생동감 있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시어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고사를

46) 『晉書』 卷一百十四, 「符堅載記下·王猛」, “桓溫入關, 猛被褐而詣之. 臺面談當世之事, 捫虱而言, 旁若無人.” (搜韻網(<https://sou-yun.com>) 引用)

47) 『楚辭』, 「戰國楚·屈原」, <離騷>, “甯戚之謳歌兮, 齊桓聞以該輔. 東漢王逸註, 甯戚衛人, 該備也. 甯戚脩德不用, 退而商賈, 宿齊東門外. 桓公夜出, 甯戚方飮牛, 叩角而歌. 桓公聞之, 知其賢, 舉用爲卿, 備輔佐也.” (搜韻網(<https://sou-yun.com>) 引用)

48) 박종훈, 「조정 박제가 초기 시 고찰」 『한객건연집』의 평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5,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3쪽. 여기서 마제백의 「봉선의기」에서 차용한 구절은 “兩從者扶挾, 前人相牽 後人見前人履底. 前人見後人頂, 如畫重累人矣.”

적재적소에 오묘하게 조합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였다.⁴⁹⁾ 이처럼 전고를 연용(連用)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시경을 재치 있게 열어나갔다.

3.2. 색채의 대비와 조화를 통한 詩中有畫의 美的 표출

수록된 사가 연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연경치의 묘사가 아름답고 회화적이라는 것이다. 사가는 그림을 보는 듯 생동감 있는 묘사를 시어로 담아내는 것에 주력하기도 한다. 이덕무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의 뜻을 모르면 색칠의 조화를 잃게 되고, 시를 읊으면서 그림의 뜻을 모르면 시의 맥락이 막히게 된다.”⁵⁰⁾ 라고 하였다. 즉 시와 그림을 창작할 때 서로 통용되는 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득공은 이서구의 『호산음고(湖山吟稿)』 서문에서 이서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 아닌 그림은 메말라서 운치가 없고, 그림 아닌 시는 어두워서 빛이 없다. 시문과 서화는 반드시 서로 어울리지언정 홀로 익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그림에서의 운치, 시에서의 빛깔은 창작 과정에서의 상호 보충적 역할과 더불어 창작자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⁵¹⁾ 또한 박제가는 “정은 있어도 그려내기 어렵다지만, 시화의 경지는 자못 서로 어울리네.”⁵²⁾ 라고 함으로써 시화일치론(詩畫一致論)을 실천의 면에서 설명하였다.⁵³⁾ 『집련』에서 수록된 사가 연구는 아름다운 필치로 눈앞에 펼친 자연풍경을 그림처럼 묘사하여 시중유화의 미감을 표출한다.

仄暉山忽雄黃潑 기울어진 햇빛에 산머리는 옹황으로 뿌리는 듯하고,

49) 고사 활용의 예로, “懶可蝶菴為配享, 貧難麴部做尚書.”(이덕무); “別來幾日非吳下, 和者無人又郢中”(유득공); “書未張軍韓阿買, 詩能名世鄭都官”(이서구); “梅花人比林和靖, 雪霽山如趙大年”(박제가) 등을 들 수 있다.

50) 畫而不知詩意, 畫液暗枯. 詩而不知畫意, 詩脉潛滯.(이덕무, 『靑莊館全書』 卷六十三, 「天涯知己書」, 한국고전번역원DB)

51) 不詩之畫而無韻, 不畫之詩而無詩. 詩文書畫, 可以相須, 不可以單一功也.(유득공, 『영재집』 권7, 「湖山吟稿序」; 김병민, 『조선중세기 북학파문학 연구』, 태학사, 1992, 288~289쪽에서 재인용.)

52) 有情無相處, 詩畫境相通.(『한객건연집』 권3, <通津雜漆首> 其一)

53) 안대희,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377쪽.

冷暈天將卵色皴 찬 햇무리에 하늘은 달갈색 주름으로 잡히려 하네.
 (이덕무, <廣州途中>)

晚浪涵花紫 해질녘 물결은 꽃을 적서 자줏빛이 나고,
 春江湧月黃 봄철의 강물은 달이 솟아 비추어 누런빛일세.
 (유득공, <錦壁亭暮歸>)

飲渚雄虹初解渴 선명한 무지개 물가에 드리우니 비로소 갈증을 풀고,
 臥堤踈柳不成眠 성긴 버드나무 제방에 누우니 잠 못 이루네.
 (이서구, <湖上急雨有懷仲牧>)

歸禽入遠時看碧 저 멀리 돌아가는 새 때때로 푸르게 보이고,
 落日盈空摠是紅 허공의 석양은 붉은 빛으로 가득 채우네.
 (박제가, <法華庵>)

첫 번째 이덕무의 연구를 보면 해질 무렵의 산과 하늘의 실경을 그려냈다. 기울어진 햇빛으로 인한 산과 하늘의 색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름다운 산수의 진경(眞景)을 보여주고 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산색과 햇빛의 조화가 어우러지게 된다. 붉은 빛과 노란 빛이 섞여 산 전체를 물들이고, 하늘 위 구름에는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달갈빛깔로 얼어져 퍼져 있다.⁵⁴⁾ 두 가지 색깔을 조화하여 그림처럼 묘사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시중유화의미를 느끼게 한다. 두 번째의 유득공 연구 또한 해질녘 때의 경치를 묘사한 것인데, 물결을 적신 자줏빛과 강물에 비친 달의 누런빛이 서로 어우러져 회화적인 미감을 준다. 이서구의 연구에는 색깔이 선명한 무지개가 수평면에 맞닿아 갈증을 풀기 위해 강물을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 게으른 버드나무가 제방에 누워 있어 산뜻한 바람에 흔들리면서 잠 못 이루 설레는 듯하다. 시 속에 그린 화면은 눈앞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박제가의 연구에서는 해 질 녘이 되어 저 멀리 동지로

54) 김원준, 『한객건연집』을 통해 본 형암 이덕무 시의 특징, 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 ‘蓬壺山房’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53쪽.

돌아가는 새들이 파란 하늘 속으로 한순간 사라지니 푸르게 보인다. 석양의 빛에 하늘이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든 광경을 그려냈다.

특히 유득공의 경우 ‘만랑(晩浪)-춘강(春江), 함(涵)-용(湧), 화(花)-월(月), 자(紫)-황(黃)’이 절묘하게 대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와 ‘황’은 대비가 되는 색채이면서도 풍경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묘사되어 있다. 이덕무는 ‘웅황(雄黃)-난색(卵色)’, 이서구는 ‘홍(虹)-류(柳)’, 박제가는 ‘벽(碧)-홍(紅)’이라는 시어를 통해, 이질적 색채를 대비하였는데, 이 색채는 객체로서 보다는 그림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정균은 『한객건연집』의 서문에서 “해동사가의 시에는 경물 형상, 기개와 포부를 묘사한 것이 많으며 아름답고 오묘하니 반가운 작품들이다.”⁵⁵⁾라고 평가하면서 사가의 시에 나타난 회화성⁵⁶⁾을 잘 파악하여 지적하였다. 황현 역시 이러한 점을 읽어내고 시화일치의 이론을 내세우며 섬세하게 묘사하는 회화성을 보여주어 시중유화의 미를 표출하는 사가의 연구를 선별했을 것이다.

3.3. 寫實的인 필치를 통한 농촌 실경의 재현

조선후기에 지속적으로 전개된 문학사조는 사실주의(寫實主義)라 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이전에는 작가의 낭만적 상상력에 의한 현실의 경물묘사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반면 18세기에 들어와 조선인의 인정(人情)과 감각에 부합하는 시가 창작되고 있다.⁵⁷⁾ 수록된 사가 연구를 보면 당시 농촌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진솔한 일상사 등을 제재로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과대한 표현이나 상상이 개입되지 않고 직면한 정경을 그대로 충실히 그려내어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55) 海東四家之詩，多刻畫景物，摠寫襟抱，妍妙可喜之作。(『한객건연집』, 반정균 서문)

56) 교묘한 색채의 조화로 시중유화의 미를 표출한 예로, “半黃楊委髮，純赤藥呈心。”(이덕무); “靑燈讀易人如玉，荷綠經秋露有珠”(유득공); “微紅藥草藏階足，迴白梨花表屋頭”(이서구); “退田空靑眉際落，長林全碧畫中分”(박제가) 등도 들 수 있다.

57) 안대희, 앞의 책, 51~52쪽 참조.

魚種晚生纖勝指 늦게 난 물고기 손가락보다 가늘고
 雞孫俱體大於拳⁵⁸⁾ 몸체 갖춘 햇병아리 주먹보다 크네.
 (이덕무, <題田舍>四首 其二)

冷燃殷色葉⁵⁹⁾ 추우면 붉은 나뭇잎을 태우고
 飢讀楚聲書 주림을 참고 『초사』를 읽누나.
 (유득공, <歲暮山中客>五首 其四)

西風古郭牛羊下 하늬바람에 옛 성에 소와 양들 내려오고,
 落日荒村虎豹橫 해질 녘 황폐한 마을에 산짐승들 날뛰네.
 (이서구, <秋廬卽事有懷仲牧>)

午時墟落惟天籟 대낮의 마을에 자연의 소리만 들리고
 卯字柴門宛古文 ‘卯’자로 된 사립문은 옛 글자처럼 뚜렷하네.
 (박제가, <信宿李心溪鄉廬>六首 其一)

이덕무의 연구에서 시인이 농촌에서 보는 물고기와 병아리의 크기를 표현할 때 사람의 신체 부위의 크기와 견주어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실제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다른 연구에서도 농촌에서 살고 있는 아낙네와 사내의 실제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였다.⁶⁰⁾ 농촌을 추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 실상을 섬세하게 보여준 것이다. 유득공의 연구에서는 농촌에서의 빈한한 현실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추우니 나뭇잎을 태우고, 배고픔을 참아 가며 『초사』를 읽는 생활을 보여준다. 땀감이 없어 나뭇잎을 태우고 배고픔을 참아 가며 학문에 매진하는 빈한한 농촌의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인의 학문태도도 엿볼 수 있다. 이서구는 연구에서 해 질 무렵의 마을의 실경을 그리고 있다. 해가 지고 가끔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이 출몰하는 광경은 캄캄해진 마을의 황폐함을 더하여 시인의 쓸쓸한 감정

58) 『한객건연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雞孫具體大於拳”으로 되어 있다.

59) 『한객건연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冷燃銀色葉”으로 되어 있다.

60) 寬衣健婦淳風返, 頓飯痴男慧竇填.(黃玑 編, 『集聯』)

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서풍이 불어 방목하는 양과 소들을 집으로 모는 정경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마지막 박제가의 연구를 보면 대낮의 마을의 실경을 보여주고 있다. 오시(午時)가 되어 사람들이 모두 낮잠을 자니 조용한 마을에 자연의 소리만 들린다. 멀리 있는 ‘묘(卯)자 모양의 사립문은 분명히 옛 글자와 같다. 대낮에 농촌에서 본 실경을 담아내었다. 꾸밈없이 조선의 농촌 실상을 섬세하게 주시하여 시화(詩化)하고 전달한 것이다.⁶¹⁾

황현은 정감이 일어나는 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자신이 사는 시대의 풍기(風氣)에 맞는 글을 창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황현은 생활 주변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이러한 사실주의를 지향한 사가의 연구들을 선별하였다.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현실을 묘사하지 않고 비록 평범한 현실일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집련』에 수록된 사가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황현의 작시관과 함께 고찰하였다. 정리하자면, 황현은 사가의 『한객건연집』에 있는 사가의 시작품을 주목하였고 여기에 내재된 신기를 중요시하였다. 신기는 창작주체의 개성과 관련된 것이었고 수사와 미적 지향으로서의 표현기법도 함께 수반된다. 뿐만 아니라 색채의 대비와 조화를 통한 시중유화의미를 표출하는 연구를 선별하고 보다 새로운 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황현은 조탁 없이 농촌 실경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연구에도 주목하였다. 이처럼 『집련』에 수록된 사가 연구의 양상에 황현의 작시관이 투영되고 있다. 황현은 한시 학습책을 편집할 때 맹목적으로 유명한 시인의 시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공부하면서 얻는 경험이나 작시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융통하여 학습자에게 시 창작할 때 중요시

61) 박제가 연구의 다른 예로 “居民小說風塵事, 釋子能知利義分.”도 들 수 있다.

해야 하는 것은 가르쳐 주는 것이다.

황현은 학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본받으려 하지 않고 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신운시의 폐단을 지적한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선별된 사가 연구를 살펴보면 신운풍이 내포되어 있다. 신운설에 대하여 사가는 맹목적으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그 폐단을 탈피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참신한 시풍을 이루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황현의 작시 태도와 상통하기 때문에 『집련』에서 왕사정의 연구⁶²⁾보다 사가 연구를 더 많이 인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황현이 후학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사가 연구의 공부를 통해 비판적 수용의 학시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있다.

황현이 『집련』 서문의 후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사람이 시 창작할 때는 옛것에서 법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 틀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다른 글에서 “지금 여러 대가를 고찰해 보면 그 장단점을 감출 수가 없다. 가짜의 옛 것은 진짜의 현재 것만 못하다. 겉모습만 취한 것은 마음으로 얻은 것만 못하다.”⁶³⁾라고 하였다. 즉 ‘옛 법’의 겉만 모방하지 않고 그 정수까지 잘 터득해야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초학자들이 시를 감상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여 쉽게 옛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러나 후대 와서 시인들은 옛 시인의 한계를 거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 시인들의 시부터 보면 전대 시의 장점을 어떻게 취하고 단점을 어떻게 보충하는지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황현은 가까운 시대 시인의 시, 즉 청나라 시인이나 신위, 사가의 시를 먼저 읽고 나서 시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학습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집련』은 교육서로서 연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 창작 방법까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이는 시를 공부하면서 작시관까지 터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고는 황현이 사가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내용, 방법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황현의 교육자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62) 『집련』에서 인용된 왕사정의 연구는 총 8연이다.

63) 今考諸家 其瑕瑜不可掩 屬古不如真今 貌取不如心得(黃琮, 『讀初學集』 其二, 『梅泉全集』 卷三,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380쪽)

참고문헌

- 黃玆 編, 『集聯』 (순천대학교박물관 소장)
- 柳琴 編, 李德懋·柳得恭·朴齊家·李書九 著, 『韓客巾衍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기태완, 『황매천시연구』, 보고서, 1999.
- 김병민, 『조선중세기 북학파문학연구』, 목원대학출판부, 1992.
- 류재일, 『이덕무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8.
-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 이덕무 외 저, 김상훈·상민 역, 『사가시선』, 여강출판사, 2000.
- 정양완, 『조선조후기 한시연구: 특히 사가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83.
- 최승효 편,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목취편』 상권, 미래문화사, 1985.
- 김영봉, 「황매천 시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원준, 「『한객건연집』을 통해 본 형암 이덕무 시의 특징- 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 ‘봉호산방’ 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33~63쪽.
(UCI: G704-001644.2013..54.014)
- 박중훈, 「조선 후기 왕사정 신운 시론 수용 양상 - 한시 사가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207~244쪽.
- _____, 「조정 박제가 초기 시 고찰 - 『한객건연집』의 평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5, 한국어문화학회, 2008, 1~28쪽.
(UCI: G704-001057.2008..35.006)
- _____, 「형암 이덕무의 초기 시 고찰 - 『한객건연집』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383~412쪽.
(UCI: G704-SER000008636.2010.30..012)
- 배중석, 「『집련』을 통해 본 매천의 학시경향」, 『열상고전연구』 30, 2009, 5~34쪽.
(UCI: G704-001858.2009..30.006)
- _____, 「매천 한시의 서정적 특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신혜숙, 「매천 황현의 문학사상 고찰」, 『동원논집』 제2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 이윤숙, 「한시사가의 초기시 연구 - 『한객건연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장 람, 「매천 황현의 중국문인 차운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장인진, 「조선조 문인의 육방용시 수용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제6집, 계명한문학회, 1990.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百度百科(baike.baidu.com)

搜韻網(<https://sou-yun.com>)

中國國家數字圖書館(<http://mylib.nlc.cn/web/guest>)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ctext.org/zhs>)

漢語大詞典(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 Abstract |

A Study on Saga's Joint Sentences in Hwang Hyun's "Jib-Ryeon"

Zhang, Lan

This paper is to observe Hwang Hyun's poetry,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aga's Joint Sentences which are included in "Jib-Ryeon". "Jib-Ryeon" contained a lot of Joint Sentences of Chinese poets and Korean poets. Especially Hwang Hyun mentioned Saga in "Jib-Ryeon"'s prefaced when he revealed the direction of learning poetry. This article is to elaborate on how Hwang Hyun taught students through Saga's Joint Sentences.

Hwang Hyun did not reject or imitated other people's methods of writing poetry but still continued to innovate. He pursued the charm of painting in poetry,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inun'. He also found poetry materials around his life and describe it realistically. This article observes how the above attitude to poetry reflects on the Saga's Joint Sentences. The result is Hwang Hyun paid attention to the Saga's poems in the "Hangaekgunyounjib", and emphasized the immanent technique of expression like 'Singi'. Also Hwang Hyun tried to express the picturesque aesthetic feeling and real description of rural reality by comparing and reconciling colors in order to build new artistic conception. In this way, the characteristics of Saga's Joint Sentences were projected on Hwang Hyun's tendency towards poetry.

We can see, Hwang Hyun always looked at study with a critical attitude. Therefore, what Hwang Hyun wants to teach to beginners is to learn poetry with a critical attitude, through the study of Saga research. This is the image of the educator he presented to us. This kind of research can be another topic in his poetry education research.

Key words : Hwang Hyun, Jib-Ryeon, Saga's Joint Sentences, poetry tendency, Hangaekgunyounjib(韓客巾衍集)

